



품질·기술의 고도화로 경쟁력 강화

대림산업(주)

21

세기를 2년 앞두고 선진국으로 치닫는 듯 하던 대한민국은 97년 12월 3일 국제통화기금(IMF) 차관이라는 구제 금융을 신청함으로써, 고도의 경제 성장에 종지부를 찍고 저성장의 시대를 맞이했다.

그 동안 건설업은 경제 성장과 더불어 안이하게 성장해왔으나, 이제는 극심한 경기 침체를 맞이하여 민간 부분의 건설 투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공공 건설 부문도 초긴축의 재정 운용 기조하에서의 투자 감소를 보일 것이 전망되기 때문에 향후 몇년간 건설 업계는 사상 유례없는 수주난에 봉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난국의 타개책으로서는 첫째로 해외 수주의 확대일 것이며, 세계의 우수한 건설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품질과 기술의 고도화를 이룩하고, 고비용 저효율적인 요소를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로 종합 건설 기술 관리 회사의 능력 확대이며, 기획·설계·시공·유지 등 건설 프로젝트의 모든 단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 원가 절감과 공기 단축의 극대화를 도모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대림산업(주)는 97년 11월 10일 인도네시아 APPRI사로부터 미화 23억달러의 석유 정제 시설을 일괄 도급 형태로 미국의 스톤 앤드 웨스터사와 공동으로 수주함으로써 대림의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하였으며, 이것은 그 동안 쉽없이 추진해온 품질 경영과 기술의 고도화에 투자한 결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대림산업(주)는 P(planning), E(engineering), P(procurement), C(construction), O&M(operation & maintenance)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더욱 확대토록 하여, 명실공히 세계의 우수한 회사로 이름을 빛낼 수 있

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기술 고도화

대림산업(주)는 1939년 10월 10일 창업하였으며, 창업 50주년이 되는 89년에 제2의 창업을 선언하고 대림21 전략 체계를 구축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그룹의 비전을 '핵심적이고 풍요로운 삶의 창출자'로 정하고, 목표를 '기술을 선도하는 세계의 GENECON'으로 하여, 세부 실천 사항으로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을 통하여 '기술력 고도화, 시장 다변화, 경영 체질 소프트웨어'를 추구하여 왔다.

특히 기술력 고도화 부분에 있어서는 축적된 기술의 데이터 베이스화, 모든 업무의 표준화·단순화, 시공의 기계화·자동화, E&C 능력 확충을 위한 전문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체계적인 조직 정비와 과감한 교육 투자를 계속하여 왔다.

제한된 건설 시장에서 독자적인 기술만이 경쟁 우위를 쟁취할 수 있는 요체임은 새삼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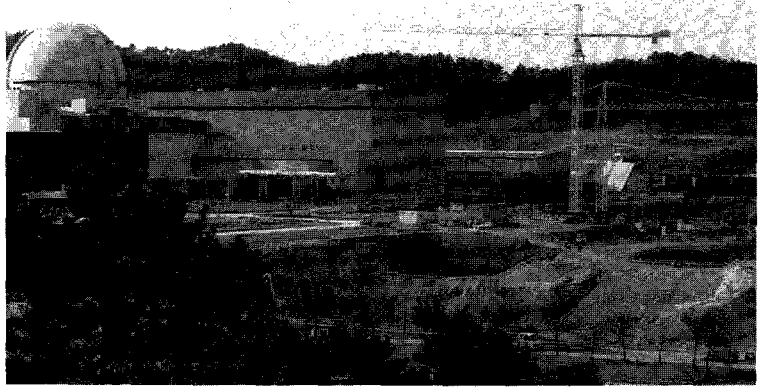
이제 우리 대림산업(주)는 다가오는 21세기의 무한 경쟁이란 거센 파도를 축적된 기술 노하우로 과감히 헤쳐나갈 것이다.

품질 및 환경 경영

요즘처럼 고객 만족(CS : customer satisfaction)이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는 것은 그 동안 시공자 위주로 건설 관리를 해왔다는 반증이 아닌가 한다.

대림산업(주)는 국제표준화기구(ISO) 품질 보증 시스템인(ISO 9001)을 95년 독일의 TUV사로부터 인증을 받은 후 매년 갱신을 통하여, 본사는 물론 국내의 전현장에서까지 품질 보증 시스템의 정착을 꾸준히 추구해 오고 있으며, 고객서비스부를 두어 고객의 니즈 파악 및 리얼 타임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지난해부터 환경 경영 인증 취득을 위하여 국내의 전현장에 환경 감시원을 두어 환경 경영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97년 11월 14일 한국능률협회로부터 ISO 환경 경영 시스템인 ISO 14000 인증을 취득하여, 환경 친화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는 쾌거를 이룩하였다.



대림산업(주)가 공사중인 영광 5호기 건설 현장. 대림산업(주)는 그동안 플랜트 건설로 쌓아올린 대림의 명성을 원자력 건설 분야를 포함하는 확대된 영역으로 꽃피워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창출자'로서 21세기를 맞으려 한다.

원자력 사업

대림산업(주)는 95년 8월 영광 원전 5·6호기를 현대건설(주)와 공동으로 수주하여 현재 공사를 수행중에 있다.

원자력 건설 경험이 없는 당사로서는 그동안 미국의 서전 앤드 런던(S&L)사로부터 프로젝트 관리, 건설 관리, 품질 관리 등에 대하여 기술 이전을 받았으며, 원전 건설 시공성 향상 연구 용역을 한국전력기술(주)와 공동으로 수행함으로써 해외 원전의 시공 기술과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검토를 통하여 시공 기술 능력 확대에 전념해 왔으며, 원전 건설 선행 호기의 건설지 및 현장 절차서 등을 확보하여 대림산업(주) 자체의 표준 절차서 작성 및 응용에 힘을 기울여 원전 시공 기술 자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현재 세계는 지구 온난화 현상 및

엘니뇨 현상 등으로 지구 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선진국 중심으로 기후변화협약(FCCC :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이 구체화되고 있는 바, 원자력은 미래의 에너지원으로서 더욱더 촉망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림산업(주)는 원전 시공 기술 자립을 바탕으로, 공사의 효율적인 관리 능력, 생산성 향상, 신기술 확대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시켜, 국내는 물론 중국을 비롯한 동남 아시아 및 서남 아시아의 원전 건설에 진출하고자 하며, 그동안 플랜트 건설로 쌓아올린 대림의 명성을 원자력 건설 분야를 포함하는 확대된 영역으로 꽃피워, 세계 곳곳에 대림의 이름을 찬란하게 떨치며,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창출자'로서, 21세기를 맞이하려고 한다.